

복시

하나의 물체를 두 개 이상으로 느끼는 것을 '복시'라고 합니다. 환자는 '물체가 둘로 보인다.'고 호소하거나 '흐려 보인다.',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퍼져 보인다.' 등 여러가지로 표현합니다. 복시는 신경안과 외래에서 비교적 흔히 접하는 증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뇌동맥류부터 간단한 굴절이상까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시에는 한 눈 복시와 두 눈 복시가 있습니다. 한 눈 복시는 한 눈으로 볼 때에도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경우를 말하며 주로 안구매체의 이상으로 발생합니다. 반면 두 눈 복시는 눈의 정렬이 잘못되어 발생하는 사시에 의한 복시로 한 쪽 눈을 감으면 복시가 사라집니다. 대개 안구의 운동을 조절하는 근육의 불균형, 신경근 접합부 이상 또는 외안근을 지배하는 신경의 이상이 생겨 발생합니다.

복시는 병력청취만으로도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아래와 같은 몇가지 자가검사를 해 보고 그 결과를 의사에게 이야기 해주면 감별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우선 한 쪽 눈을 감아도 복시가 지속되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시가 계속되는 한 눈 복시의 경우, 핀홀로 증상이 없어지는 검사합니다. 집에서는 종이에 볼펜으로 작은 구멍을 뚫고 구멍으로 물체를 봤을 때 복시가 좋아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핀홀을 대었을 때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 근시, 난시와 같은 굴절 이상이 원인인 경우가 가장 흔하며, 건조증, 각막이상, 백내장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핀홀을 대고 보아도 복시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유리체 혼탁이나 망막질환, 드물게 뇌의 이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망막전막이나 황반변성에 의한 한 눈 복시는 사물 찌그러져 보이거나 휘어져 보이는 변형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카메라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자체가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핀홀을 대어도 복시가 지속됩니다. 안과에서 빛간섭단층촬영을 시행하면 망막의 이상을 쉽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 뇌졸중, 뇌종양이나 간질 같은 뇌의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상이 여러 개로 보이는 다시증이나 움직이는 물체에 잔상이 계속 남아 있는 반복시가 나타납니다. 이경우 시야검사 및 뇌영상검사, 뇌파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눈을 가리면 어느 눈을 가려도 복시가 사라지는 두 눈 복시의 경우, 복시의 양상이 수평, 수직 또는 사선방향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을 외안근이라고 하는데 4개의 직근과 2개의 사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체가 좌우 두개로 보이는 수평복시는 내직근 혹은 외직근의 이상이 경우가 많습니다. 물체가 상하로 갈라져 보이는 수직복시는 상직근, 하직근, 상사근, 하사근의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평 및 수직복시가 동반되는 경우 상이 대각선으로 갈라져 보이기도 합니다. 눈의 회선을 담당하는 상사근의 경우, 회선복시가 나타나 상이 비스듬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고개를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기울이는 경우 한 방향에서 복시가 호전됩니다. 또한 두 상의 간격은 마비된 외안근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주시할 때 가장 넓어지기 때문에 특정한 주시방향에 따라 두 상의 간격이 넓어지는 아는 것은 마비된 외안근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컨대 오른쪽 주시 시 수평방향의 상의 간격이 넓어진다면 오른쪽 외직근 마비나 왼쪽눈 내직근 마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눈모음장애의 경우 근거리에서 복시가 더 심해집니다. 피로할 때 심해지거나 시간 경과에 따라 사시가 변화하는 양상이라면 근무력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이 있는 근육을 찾으면 그에 따라 원인을 찾는 검사를 진행합니다. 감별

진단을 위해 혈액검사, 뇌영상검사, 근전도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있던 사시가 악화되어 양안 복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려서부터 사시가 있던 경우 어렸을 때 사진에서 이상 두위가 관찰되거나 얼굴비대칭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렸을 때 같이 가지고 병원에 내원하는 것도 감별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한 물체를 주시하고 있을 때 그보다 가깝거나 먼 위치에 있는 상이 둘로 보일 수 있는데 이를 생리적 복시라 하며 정상 소견입니다.

복시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감별진단이 필요합니다. 세심한 병력청취와 이학적검사로 원인을 찾고 바른 처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경안과의사의 역할입니다.

도움글 주신 분: 건국대 안과 신현진 교수